

금호산업, 워크아웃 연내 졸업 확실

지난해 3·4분기 464억 흑자…경영지표 개선 뚜렷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금호산업이 지난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에서 흑자를 기록하는 등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차입금은 줄고, 현금성 자산도 늘어나는 등 경영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돼 연내 워크아웃 졸업이 확실시 되고 있다.

24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13년 시공능력평가 A18위(1조9171억 원)인 금호산업은 지난해 3·4분기

공시에서 464억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년 같은 분기 1732억원의 적자에서 크게 개선된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1293억원에서 1조106억원으로 줄었지만 경영상태가 호전된 것이다.

차입금(외부로부터 현금을 차입한채무)도 증가하지 않았다. 금호산업의 2012년 말 차입금 규모는 6478억 원 9479만원에 달했으나 지난해 3·4분기에는 6478억8336만원으로 소폭 감

소했다. 반면 현금성 자산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말 727억원이던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 3·4분기 892억원으로 165억원 가량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부채비율(연결 누적 기준)은 3805%로, 2012년 말 1만 3000%에 비해 대폭 줄었다. 금호산업은 그동안 부채가 줄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실상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을 위해 당시

도 줄었다. 2012년 말 1353명이던 당시 종업원 수는 지난해 3분기 1279명으로 74명이나 회사를 떠났다.

그룹 재건에 나선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행보도 올해 금호산업의 워크아웃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11년 CJ 대한통운에 매각된 금호리조트의 지분을 다시 인수했다. 지난 3일 그룹 4개 계열사(금호터미널, 아시아나IDT, 아시아나에어포트, 아시아나에바카스)는 CJ대한통운으로부터 금호리조트 지분 50%를 695억원에 인수했다.

이 때문에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자산 매각에 집중했던 금호아시아나가 경영 정상화에 다가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호산업의 워크아웃 졸업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 관계자는 “장기 점체에 빠진 건설업계가 부활하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생사여부가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졸업하면 국내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은행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

광주은행은 자녀에게 금융자산 증여 시 신고 비용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말까지 '우리가족 증여세 무료상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증여받는 사람 명의로 광주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증여신청 고객에게 자녀에 금증여세 상담과 신고대행을 제휴 세무사를 통해 무료로 해주는 것을 내

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증여재산 공제한도가 성년 자녀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나, 자녀에 대한 금융자산 증여가 금융소득세 및 추후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조특법 처리 또 불발… 광은 매각 차질

우리금융 내일 이사회, 분할기일 연기 여부 결정

국회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우리금융 지주 계열 광주·경남은행의 매각작업이 암초에 부딪쳤다. 조특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매각 무산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예정된 조세소위원회를 이날로 연기 했지만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기재위 일정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현재 안 흥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애권 비방 발언을 문제삼아 기재위 일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광주·경남은행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액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면서 지방은행 매각 작업이 고비를 맞았다.

우리금융지주는 인적분할일인 3월 1일 전까지 조특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지방은행을 매각하면서 6500억 원대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를 우려해 우리금융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조특법 개정안이 불발되면 지방은행의 인적분할을 철회할 수 있도록 분할계획서를 수정해놓은 상태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내면서까지 지방은행을 매각할 수는 없는 만큼, 조특법 개정안이 분할일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지방은행 매각을 중단할 여지를 마련해 둔 것이다. 우리금융은 이와 관련, 오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예초 분할기일인 3월 1일에 대한 연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방은행 매각의 결집돌로 작용해온 광주·경남은행 노조의 반발이 수그러들자 아관 비하 발언 문제로 촉발된 조특법 처리 연기가 또 다른 복병이 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BS금융지주도 광주은행 노조와 독립법인 유지, 고용안정 보장 등을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노사간 갈등은 수습 국면에 접어든 상태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조특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계속 미뤄지고 있어 우리금융 민영화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노조와 상생협약도 체결하고 조특법 개정안 무산에 따른 대비도 해놓은 만큼 지방은행 매각은 철학보다 연기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염주주공 재건축사업 가속도

조합 창립…내주 인가 신청

광주시 서구 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4일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조합은 다음주 조합설립승인인가를 제출할 계획이며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여 염주주공아파트의 주택재건축장비사업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4일 염주주공주택재건축장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창립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총 높이에 아파트 28개 동 1942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조합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지분제’(시공사가 사업책임을 지고,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시 사업이익을 확정하는 위탁방식)를 원하고 있어 조합설립승인인가가 나면 도급순위 30위권 내 업체를 대상으로 지분제 시공사 선정 공고를 맡게 된다.

이현기 조합장은 “조합설립승인인가는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공사업자 선정이 재건축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만큼,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야외활동 찾은 봄철 '벤시몽' 슈즈 인기

24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3층 신발매장 라움에디션에서 직원들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벤시몽’ 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다양한 색상에 편안한 소재를 사용, 봄 철 야외활동을 준비하는 고객의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벤시몽 슈즈는 6만9000원부터 7만90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참이슬’ 18.5도로 낮췄다

하이트진로, 천연원료 강화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천연원료 성분을 강화하고 깨끗한 자연주의 소주로 새롭게 태어난 ‘참이슬’을 24일 출시했다. 이번 리뉴얼 ‘참이슬’은 100% 천연원료 및 식물성 천연첨가물을 강화하고, 대나무 활성숯 숯을 활용한 자연주의 정제공법을 통해 맛이 더욱 깨끗하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하이트진로는 리뉴얼 참이슬 출시와 함께 ‘에코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친환경 참이슬’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이슬샘과 달팽이 캐릭터를 넣어 자연주의를 표현하고 친근감을 부여했다.

〈후레쉬〉

상표디자인도 ‘참이슬’ 상표에는 Green색상과 현대적이고 세련된 캘리그라피를 적용해 한층 깊고 경쾌한 이미지를 강조했으며, ‘참이슬 클래식’은 Red색상과 굵은 활자로 소주 본연의 맛을 계승하는 역사성과 자신감을 강조했다. 리뉴얼 제품의 알코올 도수는 0.5도 낮아진 18.5도다.

/홍행기자 redplane@

K-water, 건강한 수돗물 공급 워크숍

물에 좋은 수돗물을 대한 수요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K-water가 건강한 수돗물 워크숍을 갖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물 공급방법을 논의했다.

K-water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배상식)는 지난 21일 지역본부 8층 상황실에서 ‘Hello Water 서비스’ 제공을 앞두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편 K-water는 이 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Hello Water 서비스를 보완해 조만간 전남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시킬 예정이다.

련됐으며, 이용은 전남대 교수와 이윤호 광주과기원 교수, 이승자 전국주부교실 전남지부 회장 등 전문가 20여명의 참석해 Hello Water 서비스 방향과 효율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한편 K-water는 이 날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Hello Water 서비스를 보완해 조만간 전남 지역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시킬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대여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지도

• 세종금
• 산리월
• 금남로5가
• 금남로4가
• 이모리
• EK
• 무역주류
• 승화리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62-21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앞 뚜레쥬르 골목)
T. 062-228-6330
일요일에도 영업합니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 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졸업, 전주고등학교졸업]

성사를 호남1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초 혼	추 천 회 원	재 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적 희망 여성 25~38세	男 32~65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오클리스터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회망 31~5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회망 여성 29~53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회망 28~48세

임페리얼 퀸

김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한남지사 (063) 275-7766
(전주시 서신동)